

# SFAC 문화예술정책 동향리뷰

[SFAC 문화예술 정책동향리뷰]는 문화, 사회, 기술, 정책, 해외, 연구 동향관련 기사를 선별해서 격일로 제공하는 **텔레그램 채널 [문화+정책\_뉴스스크랩]** 중에서 간추린 주요 이슈들과, 매달 셋째 주에 서울문화재단 블로그에 연재되는 **[이슈페이퍼\_문화+정책]**의 요약본으로 구성됩니다. 더 관심이 가는 내용은 제공된 웹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3버전)

작성자 :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 中 주요기사 요약

10월 키워드 : #국가와 문화, #한글, #시물라시옹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 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차지한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몇 년 전에 별로 안 좋게 결론 났던 **국가와 문화**의 관계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문화부는 역사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는 듯, “노골적 정치색에, 엄중 경고”(조선일보, 2022.10.4.)를 보낸다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법 좀 아실만한 법원행정처장은 “그림만 봐선 표현의 자유”(뉴시스, 2022.10.4.)라고 원칙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문화예술계는 “문체부가 대놓고 블랙리스트”(중앙일보, 2022.10.5.)라고 반발하며 보란 듯 ‘자유!만 33번 채운 시사만화협회 성명서(한겨레신문, 2022.10.6.)를 발표합니다.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작 “윤석열차”  
(출처 : 조선일보, 2022.10.4.)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9월 13일 이란에서 22세 여성이 히잡 착용 문제로 체포되었다가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 달 넘게 “히잡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행렬에 테헤란의 분수가 붉은 물을 뿜는, 목숨을 건 풍자(한겨레신문, 2022.10.10.)까지 등장했습니다. 히잡을 쓰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문화적 선택이 국민의 풍습을 ‘도덕 경찰’로 다스리겠다는 국가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진시황제에 준하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선출에 앞서 농촌의 부조리를 고발한 예술영화는 퇴출되고, 당 대회에 맞추어 100일 만에 제작된 “우리는 중국인입니다”를 외치는 애국영화는 흥행가도(연합뉴스TV, 2022.10.3.)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대관식이 될 당 대회를 앞두고 모든 극장에서 1주일에 2회 이상 이른바 애국영화 2편을 의무상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조장된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감정이 280만원짜리 중국 도자기를 프랑스 경매에서 108억원에 낙찰(연합뉴스, 2022.10.4.) 받는 어이없는 모습까지 연출합니다. 국가와 정권이 다르지만, 아무리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를 제공하는 어진 문화국가라도 “최소 개입의 원칙”을 따라야하는 것이 문화정책입니다. ‘외로운’ 유권자는 우파에 표를 준다(한겨레21, 2022.10.18.)는 정치적 계산에서 영국 정부가 외로움부(한겨레21, 2022.10.18.)를 발족한 것이라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인간의 외로움과 문화라는 매우 개인적인 영역에 공공정책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높은 민감성을 필요로 합니다. 설사 정책의 결과가 생각대로 선한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국민의 내면을 바꾸겠다는 본심을 숨기고,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최소한으로만 개입하는 것이, 문화를 대하는 국가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10월이면 의례히 ‘올해의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경향신문, 2022.10.9.) 같은 **한글** 관련 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하는 것은 식상하지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이슈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우리말을 그대로, 즉 ‘막내’, ‘동생’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경향신문, 2022.10.9.) 등재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외국 가수의 대중가요 가사에 한글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이, 한류의 인기로 한글의 위상도 높아지는 것을 체감하게 합니다. 반면, 최근 인터넷에서 ‘심심한 사과’로 붙여진 문해력 논쟁은 ‘알잘딱깔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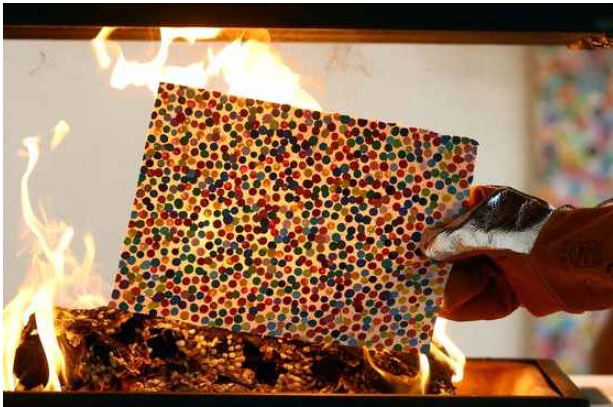
문해력 저하와 외계어의 난무  
(출처 : KBS 뉴스, 2022.10.9.)

같이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KBS 뉴스, 2022.10.9.)에 대한 기존의 논쟁에서 한 단계 더 나간 불통사회에 대한 걱정을 던져줍니다. 마누라-외다리 같은 차별과 비하 표제어에 대해 네이버 어학사전 등 인터넷 서비스 시 '주의' 문구를 표시(뉴시스, 2022.9.30.)하도록 한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읽는 로마자 표기법을 제정하라”(한겨레신문,

2022.10.5.)는 주장은 일견 아날로그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발달된 AI문명 시대에 필요한 변화입니다. 외국인이 로마자로 표기된 한국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들이대며 야냐고 물을 때 왜 한국 사람이면서 더 모를까 하는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너무 똑똑한 구글 번역기가 말의 사용례까지 찾아서 제시하는 ‘Haman’이 한국인에게는 오히려 ‘함안’인지 ‘하만’인지 헷갈립니다. 시대에 맞는 표기 원칙이 필요합니다. “문자 넘어 예술이 되다... 한글의 변신은 무죄(서울신문, 2022.10.10.)라는 류의 기사는 사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2020년에 문화부에서 공고한 “한글, 한국어의 사회적 가치와 산업적 규모 추정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찾아지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만 보더라도 영어산업의 경제적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커질 그 산업적 규모를 추정해봄직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프리다.NFT라는 암화화페 기업의 대표가 NFT로 팔려고 140억 원짜리 프리다 칼로의 작품 '불길한 유령들'(Fantasmones Siniestros)' 원본을 소각(YTN, 2022.9.30.)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로 홍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분히 노이즈 마케팅의 의도가 엿보이지만, 프리다 칼로의 고향인 멕시코 정부는 문화유산 파괴



데미안 허스트가 NFT 고객을 위해 자기 작품을 불태우는 장면 (출처 : 중앙일보, 2022.10.12.)

범죄행위로 보고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번에는 유명 현대미술가 데미안 허스트가 NFT 작품 소장자를 위해 스스로 자기 작품 4000여 점을 태운다(중앙일보, 2022.10.12.)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NFT화해서 판매한 작품들을 진정한 원본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디지털화 된 가상이 원본의 지위를 갖도록 오프라인의 원본 작품을 불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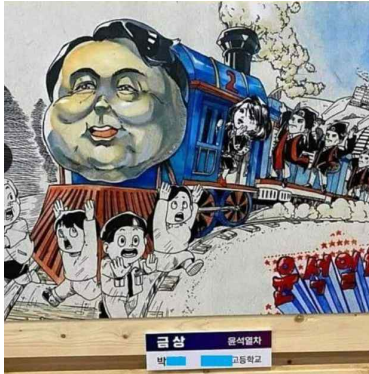
사례는 2021년 뱅크시의 작품 소각 사건이 시발점이었는데, 앞으로 봄처럼 번질 것 같습니다. 옹고집전에서 가짜 옹고집에 의해 진짜 옹고집이 쫓겨나듯이, 가상이 실제의 지위를 차지하는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유니버스를 대체하는 시대도 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시물라크르와 **시물라시옹**"(Simulacres et Simulation)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했고, 워쇼스키 자매는 영화 "매트릭스"로 보여줬습니다.

영화 속에서만 있을 얘기라고 하기에는, 잠도 자지 않고, 스캔들 걱정도 없이 문화예술 시장을 뒤흔드는 '버추얼 휴먼' 모델과 아이돌의 매력(ACKIS 브리핑, 2022.10.4.)은 이미 현실입니다. "투표하지 않는 덴마크 국민 20%를 대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AI 챗봇이 대표인 '종합(Synthetic)당이 다음 달 총선에 도전(AI타임스, 2022.10.14.)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리버럴한 먼 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합리적인 정책 만들거나 심지어 소통 능력에서도 AI보다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을 차라리 AI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그 나라에 비할 정도가 아니지 않나요? Culture As Algorithm 시대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정치적 변화를 이해하려고, 덴마크 총선 결과를 예의주시해봅니다.

# 1 사회·문화·트렌드

▶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가와 문화



논란이 된 수상작 “윤석열차”  
(출처 : 조선일보, 2022.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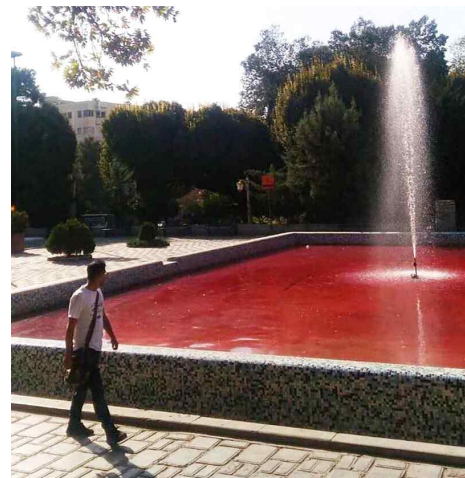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시사만화협회의 성명  
(출처 : 한겨레신문, 2022.10.6.)

- 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정부 “노골적 정치색, 엄중 경고” (정상혁, 조선일보, 2022.10.4.)
- 법원행정처장 '윤석열차' 논란에 “그림만 봐선 표현의 자유” (류인선, 뉴시스, 2022.10.4.)
- 문체부 '윤석열차' 경고에... 웹툰협회 “대놓고 블랙리스트” (장구슬, 중앙일보, 2022.10.5.)
- “윤석열차 외압”...보란 듯 '자유!' 33번 채운 시사만화협 성명 (정혁준, 한겨레신문, 2022.10.6.)
- 이란 시위 1분 정리: 왜 이전 시위와 다른가 (BBC News 코리아, 2022.10.15.)
- 테헤란 분수에 붉은 물...목숨 건 풍자 넘치는 히잡 반대 시위 (김미향, 한겨레신문, 2022.10.10.)
- 중국서 부조리 고발 영화 퇴출...애국영화는 흥행가도 (연합뉴스TV, 2022.10.3.)
- '감정가 280만원' 中도자기...프랑스서 108억원에 낙찰된 이유는 (오진송, 연합뉴스, 2022.10.4.)
- '외로운' 유권자는 우파에 표를 준다 (박다해, 한겨레21, 2022.10.18.)
- 영국엔 이런 부처가 있다고?...외로움부 (박다해, 한겨레21, 2022.10.18.)



중국 농촌의 부조리를 고발한다고 조기 퇴출된 영화  
(출처 : 연합뉴스TV, 2022.10.3.)



이란 시위의 일환으로 설치된 붉은 물 분수  
(출처 : 한겨레신문, 2022.10.10.)

# #한글



한글박물관 '근대 한글 연구소'展 (출처 : 서울신문, 2022.10.10.)

- '올해의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로 선정된 '배뜨롱'...도대체 무슨 뜻? (윤희일, 경향신문, 2022.10.9.)
- '막내', '동생'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K컬쳐 단어사전 발간도 협의 (김혜리, 경향신문, 2022.10.9.)
- '심심한 사과' vs '알잘딱깔센'...우리는 소통하고 있나요? (이예린, KBS 뉴스, 2022.10.9.)
- 마누라외다리...네이버, 어학사전에 차별표현 '주의' 문구 표시 (최은수, 뉴시스, 2022.9.30.)
- 한글 읽는 로마자 표기법을 제정하라 (김선일, 한겨레신문, 2022.10.5.)
- 문자 넘어 예술이 되다... 한글의 변신은 무죄 (류재민, 서울신문, 2022.10.10.)

상장 종류	상표명
아름다운 상표 (문체부장관상)	<b>배뜨롱</b>
고운 상표 (특허청장상)	숨통원
정다운 상표 (국립국어원장상)	아기곶
	라운숨
	꾸버스
	사랑해별
	광화별

올해의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출처 : 경향신문, 2022.10.9.)



차별 또는 비하 단어에 대한 경고 표시  
(출처 : 뉴시스, 2022.9.30.)

## #시물라시옹



NFT를 위해 자기 작품을 태우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  
(출처 : 중앙일보, 2022.10.12.)

- NFT로 팔려고 140억 원짜리 프리다 칼로 그림 원본 소각 (임수근, YTN, 2022.9.30.)
- NFT 위해 작품 4000여 점을 태운다고? 데미안 허스트가 또 일을 (이은주, 중앙일보, 2022.10.12.)
- 문화예술 시장을 뒤흔들 '버추얼 휴먼의 매력 (김혜원, ACKIS 브리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10.4.)
- AI 챗봇이 대표인 덴마크 정당...다음달 총선 도전 (정병일, 시타임스, 2022.10.14.)



문화계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인 버추얼 휴먼  
(출처 : ACKIS 브리핑, 2022.10.4.)

코펜하겐 의사당 앞에서 홍보활동 중인, AI가 대표인 종합당 당원  
(출처 : 시타임스, 2022.10.14.)

## → 기타 눈여겨 볼 기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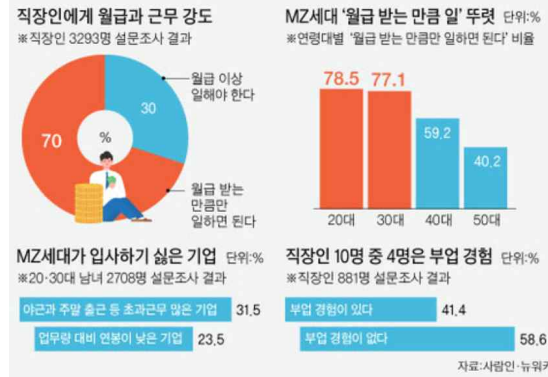
### <문화부 국감>

- 5년간 예술인 임금체불액 25억원...불공정행위는 969건 (이은정, 연합뉴스, 2022.10.4.)
- '45억 집행' 문체부 청년일자리 "10명중 7명은 퇴사" (김미경, 이데일리, 2022.10.4.)
- "문화누리카드 불용액 200억원 넘어...가맹점 확대 등 대책 필요" (이은정, 연합뉴스, 2022.10.24.)

### <MZ 세대 현상??>

- "수업 어렵다" 원성에 교수 해고한 뉴욕대... '대학 교육이란 뭔가' 논란 (박은하, 경향신문, 2022.10.5.)
- 뮤지컬에 빠진 2030女 이젠 공연보고 투자까지... 커지는 뮤지컬 시장 투자처로도 주목 (강홍민, 한국경제, 2022.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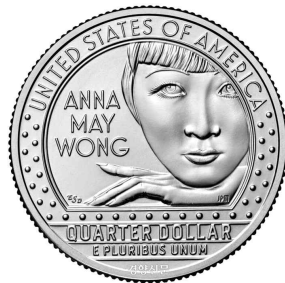
- 고희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 뿌린 영국 환경운동가 체포 (조해영, 한겨레신문, 20-22.10.14)
- "호빵 조심해, 삼립도 SPC"...피 묻은 빵 불매 일파만파 (이우연, 한겨레신문, 2022.10.18.)
- "해고될 수도 있는데 왜 야근해?"...MZ 타고 부는 '조용한 사직' 열풍 (이창균, 중앙일보, 2022.10.15.)



출처 : 중앙일보, 2022.10.15.)

<Very Asian>

- '설날도 캘리포니아주 명절됐다..'음력설' 공휴일 지정 (임선영, 중앙일보, 2022.10.3.)
- 아시아계 얼굴 새긴 미국 동전 첫 발행 ...할리우드 배우 애나 메이 웡 (김재중, 경향신문, 2022.10.19.)



출처 : 경향신문, 2022.10.19.)

- '아시안 뺨때리기 챌린지'를 아시나요 (고한솔, 한겨레21, 2022.10.15.)

<국제사회에서 미움 받는 법>

- " 푸틴 기어이 핵버튼 누르나..."북극해에 '지구 종말 무기' 보냈다" (김서원, 중앙일보, 2022.10.4.)
- "北미사일 日열도 통과 후..조선학교 대상 '증오범죄' 잇따라 (김다영, 중앙일보, 2022.10.18.)
- "사라진 모스크바 남성들..."징집됐거나 도망갔거나" (최재서, 연합뉴스, 2022.10.20.)

<기 타>

- 한국 자살률 OECD국 1위이지만, 전체 사망률은 최하위 (신성식, 중앙선데이, 2022.10.1.)
- 전국 문화재단 청주에 모인다..청주서 열리는 '재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 (이삭, 경향신문, 2022.10.12.)
- 군대가는 BTS에...미 경제지 "한국, 매년 5조 벌 기회 놓쳤다" (하수영, 중앙일보, 2022.0.18)

## 2 문화·정책·연구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이나 별첨<문화정책 뉴스 스크랩>을 참고하세요

### □ 한국 MZ세대 미술품 구매자 연구 (주연화 등,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9)

- MZ세대 전체 구매자는 최근 3년간 평균 약 7.5점, XB세대 전체 구매자는 평균 약 10.7점, MZ세대 상위 구매자는 평균 약 20.8점의 미술품을 구매
- 최근 3년간 구매 총액이 다른 구매자보다 높은 상위 구매자는 일반 구매자 대비 약 2.8배 많은 작품을 구매. 미술품 구매는 반복적 구매를 통해 구매 경력을 쌓을 수 있기에 상위 구매자는 전체 구매자보다 구매경력이 더 높음
- MZ세대는 XB세대 대비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에 작품 구매가 집중된 반면, '5,000만원 이상' 작품의 구매는 뚜렷이 낮아
- 하지만, MZ세대 상위 구매자는 '1,000만원~5,000만원 미만'과 '5,000만원 이상' 작품을 주로 구매

그림 1 구매자 : 최근 3년간 구입한 미술 작품 수 분포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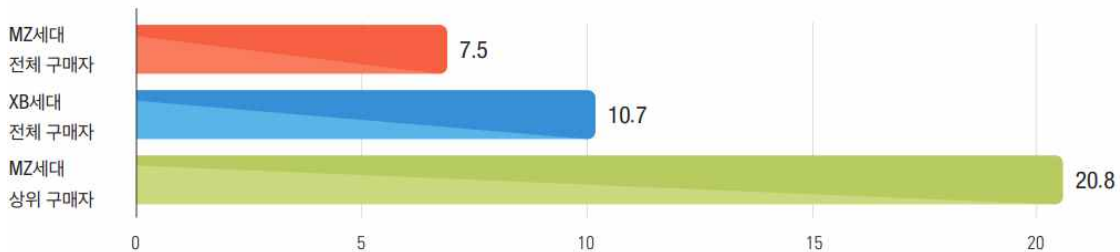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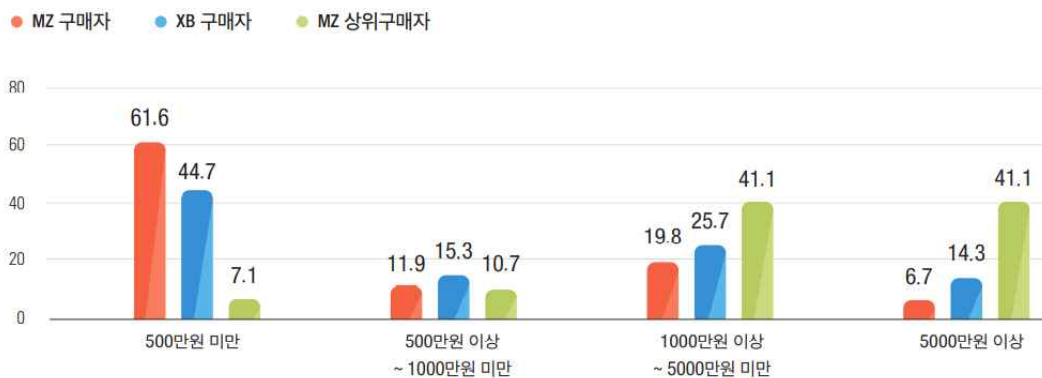


그림 3 구매자 : 최근 구입한 작품의 가격대 분포 (단위 : %)



### □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 (백선혜 등, 서울연구원, 2022.9.30)

- 문화정책의 지역화가 강조되면서,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첫째, 시민 개개인의 일상 속 문화향유가 강조되면서 서울시 문화정책이 수요자 중심문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
- 둘째, 도시브랜드 차원에서 '로컬'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



추진 전략	세부 과제
01. 서울시 자치구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1-1. 서울시 문화자치 조례 제정 1-2. 지역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체계 혁신 1-3. 지방문화재단 확충
02. 서울시-자치구 간 안정적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형성	2-1. 문화자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2-2. 문화자치포럼 운영 2-3. 서울시 문화본부 내 광역·기초 협력 전담부서 설치 2-4. 자치구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사업체계 구축
03. 지역문화 활성화 관점에서 서울시-자치구 역할 정립	3-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광역(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정립 3-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초(자치구,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정립

[그림 5-1]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의 추진전략과 과제

□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이소영, 박진영, 정책이슈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 환경파괴적인 대중관광에서 지역주민이 함께 만족하는 뉴투어리즘으로 패러다임 변화, COVID19에 따른 관광시장의 위축
-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공정관광 정책 도입의 필요
- 공정관광은 제3세계에 대한 불평등한 무역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주장하는 공정무역의 개념이 관광분야에서 적용되면서 대두, 여행자와 지역주민 간 존중·동반성장과 지역공동체에 관광이익을 환원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여행
- 서울관광재단과 세계관광기구(UNWTO)의 'Travelenjoyrepect'와 함께 공정관광캠페인도 진행



□ **문화관광 분야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권태일, 송정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년)**

- 2020년 6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복지분야에서 맞춤형행정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2020년 8월 데이터 3법(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의 개정안 통과로, 가명정보를 통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통계작성,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라는 제한적 목적 하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이에 따라 현재 '가명처리 데이터'를 이용해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예.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등)마련이 활발하게 이루고 지고 있음

〈표 4〉 가명정보 도입 전후 비교 및 기대효과

구분	가명정보 도입 전	가명정보 도입 후	기대효과
개인 단위 원시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익명화된 집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량 위주의 추세 분석</li> <li>· 각 특성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세부 특성별 비교 분석이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단위 원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인당 평균 치 통계를 산출</li> <li>· 이를 바탕으로 세부 특성별 통계치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됨</li> </ul>	개인단위 통계 생산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변화와 추세를 파악할 수 있어 개인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관련 시사점 제공
시의성 높은 대규모 패널 데이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반 패널 데이터는 자료 수집 및 공표에 시간 소요 다</li> <li>· 표본의 규모가 크지 않아 패널 이탈 시 종단 분석 시 어려움 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데이터 내 고객의 시계열 정보를 활용, 대규모 패널 데이터 구축 가능</li> <li>· 민간데이터의 경우 시의성이 높아 시의성 있는 패널자료 확보 가능</li> </ul>	패널데이터 분석을 활용 사회변화에 대응한 적시성 높은 정책적 대응 가능
분석 가능한 유효표본 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데이터는 세부 특성별 혹은 소지역 단위 통계 생산을 위한 유효표본 확보가 어려움</li> <li>· 민간데이터의 경우, 개인 단위 원시자료 활용 불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단위 원시자료 형태인 대규모 표본의 민간데이터 확보 가능</li> <li>·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가능</li> <li>· 시군구 또는 읍면도 단위 통계생산 가능</li> </ul>	세부적인 특성 및 소지역 통계 산출을 통해 맞춤형 정책 수립 시 근거 자료로 활용
이종 데이터 결합을 통한 활용정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를 문제로 개인단위 정보 결합 제한</li> <li>· 서로 다른 자료의 유사한 개체를 결합하는 통계적 연계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결합해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점 도출 가능</li> <li>· 가명처리를 통해 정확연계가 가능하여 정확한 데이터 확보</li> </ul>	이종 데이터 결합을 통해 기존 데이터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정책 시사점 제시

<기타 소개된 연구 자료들 : 요약내용은 별첨 <문화정책 뉴스스크랩> 참조>

- 예술인 예술근로특성과 예술소득 영향연구 (오시진, 윤수영,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72호, 2022.9.29.)
-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개념과 특징” (백인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T & Future Strategy 2022-7, 2022.10.12.)
- 주요국의 AI 사용법 :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위한 AI 활용 (김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8.31.)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교제(김지민배상희, 국회입법조사처, 2022.10.4.)
- 영국의 친혁신 AI 규제 추진 동향 : AI 규제 원칙 및 규제 역량 강화방안 보고서를 중심으로 (오연주,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 2022.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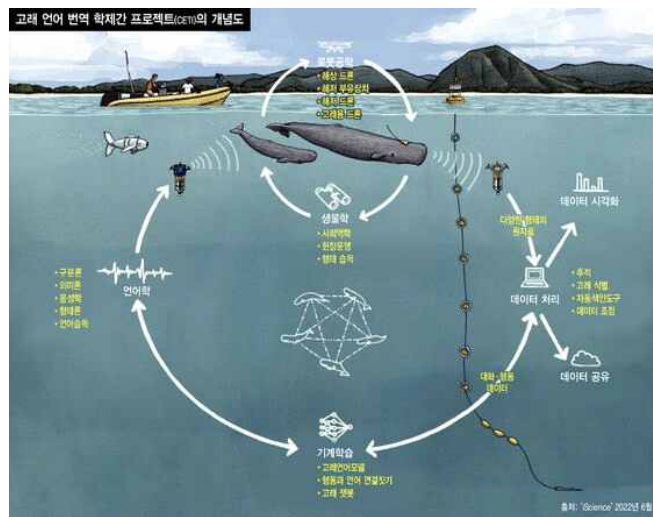
### 3 문화·기술

▶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기사요약은 별첨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 참조

#### #AI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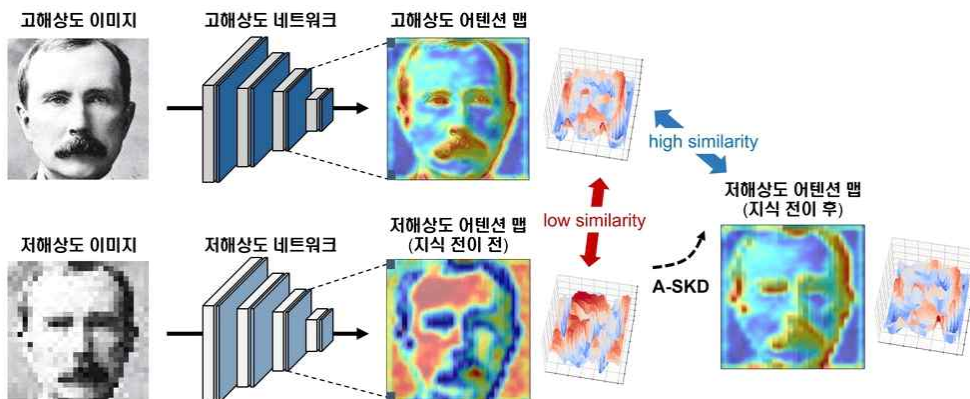
##### □ 고래돼자박쥐 울음소리, AI가 번역한다 (구본권, 한겨레신문, 2022.10.3.)

- 인공지능, 동물 소통법 연구 활용, 스마트폰용 '고양이언어 번역기'도...AI로 데이터 패턴·상관성 분석. 향유고래 대상 '고래언어 해독' 연구인간의 동물 이해·공감 바꿀 수도



출처 : 한겨레신문, 2022.10.3.

- "K-댄스도 저작권 보호"...AI 안무 인식 기술 개발 (서명수, 중앙일보, 2022.9.30.)
- 소리 안 내도 음성 인식..농아인 의사소통 길 열린다 (정희영, 매일경제, 2022.10.6.)
- 뉴스로 AI 훈련시켰더니..1~2분기 뒤 물가 변동 예측 가능 (박대한, 연합뉴스, 2022.10.17.)
- 메타, 문자없는 언어를 번역하는 AI 공개 (박찬, 시타임스, 2022.10.20.)
- CCTV 속 흐릿한 범인 얼굴, AI 기술로 '또렷이' (박철홍, 연합뉴스, 2022.10.24.)



출처 : 연합뉴스, 2022.10.24.

## #AI 창작

- '사피엔스' 서문 보고 깜짝 놀란 하라리.."AI가 이 글을 썼다고?" (송광호, 연합뉴스, 2022.10.19.)
- 카카오브레인, 인공지능이 그림 그려주는 '비 디스커버' 앱 출시 (임성호, 연합뉴스, 2022.10.24.)
- 영국 의회 청문회에 선 아티스트 로봇 '에이다' (정병일, AI타임스, 2022.10.12.)
  - 영국 상원의 통신 및 디지털 위원회가 창작산업의 미래에 대한 청문회에 인공지능(AI)의 창작 활용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에이다를 부른 것.



출처 : 에이다 홈페이지,  
AI타임스, 2022.10.12.

## #메타버스

- 이제는 AR메타버스로 전쟁 훈련까지 한다 (김미정, AI타임스, 2022.10.5.)
- 메타버스에 진심인 UAE..샤르자 가상도시 구축 (임대준, AI타임스, 2022.10.13.)
- 메타버스 산업은 거품인가 (전성민, 전자신문, 2022.10.24.)

## #윤리문제

- 美 AI 권리장전 청사진 공개 (정병일, AI타임스, 2022.10.5.)
  - 미국 백악관은 5일 과학기술정책실 명의로 'AI 권리장전(AI Bill of Right) 청사진' 발표
- 정부 "AI 정책 수립 때 '인권 가이드라인' 반영" (박규리, 연합뉴스, 2022.10.21.)
- 편향된 AI를 공개수배 합니다 (정병일, AI타임스, 2022.10.27.)
  - 편견해커(Bias Buccaneers)라는 자원봉사 전문가 그룹, AI 편견 찾기에 현상금 내걸어...1등 6000달러 등 총상금 1만2000달러 규모 대회 개최

## #기타 트렌드

- 구글 "중국서 번역 서비스 중단"..5년 만에 철수 (유자비, 뉴시스, 2022.10.4.)
- "키오스크는 고문기계"..세상은 변한다, 노인들이 못 쫓아오게 (김보미 등, 경향신문, 2022.10.18.)
- 국회 "망 사용료 왜 회피하냐" vs 빅테크 "무임승차 아냐" (이정현, 연합뉴스, 2022.10.21.)

## 4 해외·동향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문화정책 뉴스 스크랩>이나 링크를 통해 기사 원문을 참고하세요

### ☐ Creative Europe 라이브 음악 부문 지원 공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22.9.15.)

- Music Moves Europe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음악 공연장 협연, 음악 콘텐츠 수출 등 라이브 음악 활성화를 지원함
- 총 450만 유로 지원, 2023.1.12.까지 공모 접수



### ☐ 바이든 대통령, 예술과 인문학의 달에 대한 선언문 발표 (미연방예술기금(NEA), 2022.9.30.)

- 2022년 10월을 국가 예술 및 인문학의 달로 지정하는 선언문을 발표
-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진흥을 위한 행정명령 포함
- 선언문에서 대통령은 예술과 인문학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PCAH)의 재설립을 포함하여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을 발표함

### ☐ Americans for the Arts 2022년 내셔널 아트 어워드 발표 (미국예술진흥협회(Americans for the Arts), 2022.10.3.)

- 10월 17일 월요일, 뉴욕 구스타비노에서 2022년 National Arts Awards 시상계획을 발표함
-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National Arts Awards는 국가 예술 및 인문학의 달의 일환으로 개최
- 미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가, 자선가, 정책자, 시민 지도자 및 조직에 대해 시상
- 올해 수상은 Joy Harjo (Lifetime Achievement Award), Robert F. Smith (Philanthropy in the Arts Award) 등 5건



☐ 원주민 예술과 문화를 위한 공적 자금의 가치에 관한 연구

(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2022.9.29.)

- 캐나다 예술 위원회는 Archipel Research and Consulting Inc.와 협력하여 캐나다 전역의 원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예술과 문화의 역할과 원주민 예술 및 문화에 대한 공적 자금지원의 효과 연구 진행
- 아래 주요 연구결과와 총 26개의 권장 사항 도출
  - . 예술과 문화적 관습은 원주민의 존재 방식에 필수적
  - . 공적 자금은 원주민 예술가, 예술 및 문화 활동에 필수적
  - . 원주민 예술가와 단체는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인공지능 활용 계약 체결로 의사 결정 강화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2022.10.12.)

- 아부다비 문화부(DCT Abu Dhabi)와 통계센터(SCAD)가 인공 지능(AI)을 통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
- 이 계약을 통해 SCAD의 AI 기반 유도 및 예측 플랫폼 사용 가능
- 계약의 일환으로 SCAD는 DCT Abu Dhabi에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 부서 직원이 미래 계획 및 전략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육 가능

☐ 2023년 유로비전 개최지로 영국 리버풀 선정 (윤태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통신원 리포트, 2022.10.11.)

- 2022년 유로비전 우승자는 우크라이나의 힙합 밴드인 칼루시 오케스트라(Kalush Orchestra)
- 유로비전의 관행에 따라 2023년 대회 개최국은 전년도 우승자의 국가, 즉 우크라이나이어야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내 전쟁으로 인해 현재 대회가 개최될 수 없는 상황
- 이에 따라 2위를 차지한 샘 라이더의 출신국인 영국이 대신해서 2023년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



< 2023년 개최지 리버풀을 소개하는 영상 - 출처: 유로비전 공식 유튜브 채널(@Eurovision Song Contest) >

[문화+정책\_뉴스스크랩]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체기사 목록과 좀 더 자세한 요약을 보시려면 [☞<문화정책 뉴스스크랩> 파일 다운로드](#)

문의:미래전략팀

## 아부다비 컬처 서밋 2022... 문화정책의 미래 어젠다들

지난 10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3일간 아부다비 Manarat Al Saadiyat 미술관에서 “2022 아부다비 문화서밋”(Abu Dhabi Culture Summit 2022)이 열렸습니다. “A Living Culture”라는 주제를 사흘에 걸쳐 각각 문화생태계/문화참여자/문화다양성 관점으로 훑어보는 기조강연, 사례발표, 토론, 대화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문화의 변화, 그리고 현장의 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부다비 문화관광부가 주최하지만, 각 세션을 유네스코, 구글, Economist Impact, the Design Museum,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 구겐하임 박물관 등이 맡아서, 문화, 예술, 기술, 매스미디어, 경제 및 사회를 두루 아우르는 이야기들이 오가도록 했습니다. 진주잡이 어부의 전통 노동요 공연부터 인공지능 로봇과의 대화까지 실로 다양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인권 신장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직 대통령들,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한 주체가 되는데 필요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 얘기하는 코메디언 트레버 노아, 그리고 인간성의 본질과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휴머노이드 예술가 아이다와의 대화, 그리고 디아스포라와 문화외교, 기후위기에 대응한 문화예술 행동 등이 아직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 근 미래 문화정책 이슈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또한 산유국의 재원과 왕조의 리더십이 거의 무한대로 문화정책에 공급될 때 어떤 변화와 비전을 떠올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행사였습니다.



[Abu Dhabi Culture Summit 2022](#) 식전행사  
전통공연

### [목 차]

1. 사막과 바다 ... natural & cultural cross-road
  2. 문화정책 어젠다의 스펙트럼 ... 진주잡이 노동요부터 휴머노이드의 인간성 토론까지
  3. 이를 보여줄 수 있는 프리즘 ... 전제 왕권의 리더십?
  4. 글로벌라이제이션 ... 맥락을 소통하는 문화적 대화
-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 문화정책 미래 어젠다 관련 보고서들](#)